

지역 소식통

정읍시, 김장철 쓰레기

신속 처리 18일부터 수거

정읍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12월 25일 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무, 파 등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채소 부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 부산물을 투명 또는 파란 비닐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대문 앞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수거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20일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등 음식물 쓰레기는 특별 수거 기간과 상관없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 또는 규격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사면 항구복구 강화

정읍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사면 붕괴 피해를 입었던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 도로 사면 복구공사를 지난 10월 말에 최종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구공사는 지난해 8월 임시 응급 복구로 차량 통행을 재개한 이후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면 보강 작업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완벽하게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에서 계단식 옹벽과 영구 앵커, 락볼트 설치 등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와 지반 침하에 대비하는 철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복구공사 과정에서 불편을 견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천군만마 얻고 수출 교두보 마련

고창군, 계절근로자 유치·농특산물 수출 상담·관측 활동... 다양한 제품 선보여

고창군이 지난 3~9일 동남아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출장을 통해 "계절근로자 유치와 농특산물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출장은 내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는 내년도 유치할 근로자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로 약속 받았다.

신규 국가인 라오스에는 노동사회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라오스 근로자들의 여건을 검토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추가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동남아 시장에서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라오스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 및 관측 활동을 통해 고창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복분자주, 장어, 켈리 등 다양한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보였다.

또한 라오스 국영방송국에서 취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잠재력이 있는 라오스 시장에 고창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창군 방문단은 베트남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K&K Global Trading(회장 고상구)과 7일 하노이 본사에서 고창 농특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복분자주, 켈리, 장어 가공제품 등이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

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연간 5만불 정도의 수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동남아 방문을 통해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 해결과 농특산물 수출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계절근로자 유치 협력 확대와 농특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단기적인 계절근로자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지방 외교 교류 및 협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시민과 소통하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최종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

'정읍의 변화는 시민의 손끝에서'

정읍시, 하반기 정책제안 페스티벌 시상식 열려

정읍시는 시민과 소통하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최종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주간 시민을 대상,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공모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출했다.

그 결과 총 313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고 이를 부서 검토와 실무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으로 9건을 선정하고 지난 12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에게는 시상장을 포함해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시민 부문에서는 △좁은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과 벽부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 △불필요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장서 자료의 나눔 행사 개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관광 홈페이지에 반려가족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재활용 가능한 시장 홍보물 제작을 통해 ESG 실천을 제언한 아이디어가 뽑혔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측량 신청과 동시에 지적 공부 정리 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어 △보도야 차도 경계석을 개선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 △정읍을 액티비티 명소로 만들기 위한 열정 넘치는 프로그램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QR 코드를 추가해 청소 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5년 연속 '매우 우수'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 최고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 전담 인력의 역량, 발 농업기계화 추진 정책 참여 및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전국 147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도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2019년 이후 5년 연속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인 정우면을 비롯 북부(신대인읍), 서남권(소성면), 동부(웅동면), 서부(영원면) 등 권역별 5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영농 생활을 위해 주요 농기계의 현장 실습 교육, 소형 건설기계와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농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학부모회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의정실에서 지역 학부모회 협의회(회장 이승연)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의원과 학부모연

합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의 현실성과 정책 개선에 대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돌봄 시설의 확충, △학교 급식사 관리 및 운영의 개선, △통학택시의 이용요건 완화 및 확대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학부모들은 특히 면단위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및 지역 사회의 교육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중이며, 의회 차원



에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부안군 교육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전북연구원, 고창의 미래 위해 머리 맞대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13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와 이남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여러 현안사업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의 안건으로는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고창댐 건설 방안, △고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고창군을 대표하는 읍내권 도시정원인 꽃정원 단지의 활성화 방안 △고창을 넘어 전국적으로 김치산업을 선도할 김치원료 공급 단지의 중장기 운영방향, △석적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고령친화(산연) 진흥지구 조성 방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고창은



복분자, 풍천장어에 이어 K-김치의 세계화를 선도할 우수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면서, "전북연구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의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실적과 꾀직한 대형 공모사업 선정, 민간투자 유치 등 민생기 주요 성과들은 전북연구원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